

논술시험 출제 보도자료

■ 출제 방향

1. 우리 대학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풍부한 독서와 문화적 체험을 쌓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는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에서 출제”한다는 서울지역 12개 대학의 합의(1997년 12월)에 따라 출제되고 있다.
2. 논술고사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평소에 고전을 많이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능력과 우리 주변의 사물과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3. 제시문은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사회에 관한 여러 책에서 고루 선정하였다. 비록 제시된 책들을 직접 읽지 않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적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논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4. 올해는 지난 몇 년간의 연세대학교 논술고사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나 느끼는 익숙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세상과 사물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논리성과 창의성을 키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생각과 열린 마음, 그리고 성찰적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장래는 물론 본 연세대학교의 학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 문제 설명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느낌과 생각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아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지 사회현실의 예를 들어 논하시오. (1,800 자 안팎. 150분)

제시문(가), 『장자(莊子)』 추수(秋水)편

제시문(나), 토마스 네이글, 「박쥐의 입장에서 느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제시문(다), 김유정, 「동백꽃」

제시문(라), 폴 처칠랜드, 『물질과 의식』

이 문제는 “타자의 마음(Other Mind)”--또는 “다른 존재의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인식론적 물음과 관련하여 그 물음의 범위가 지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지하면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 사회 현실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텍스트를 세심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 근본적 물음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능력, 자기 생각을 구체적 사회 현실에 적용시켜 창의적이고 응용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더욱 더 복잡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 지역,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 부족이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지장에 초래하고 있다. 사회의 외연이 점점 확대되어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들”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타자들을 “우리들”의 울타리 안에 넣어 그들과 상호작용해야 할 상황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들을 또 다른 주체들로서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그들을 주체들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확대된 “우리들” 사이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차이들은 그러한 이해의 과업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런 이해의 과업의 어려움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들” 속에 포함시켰던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해의 과업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나는 나 자신의 마음속만을 들여다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걸모습, 신체 구조, 얼굴 표정, 말, 행동 등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가 나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주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조차도 나는 그의 걸모습과 행동 등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가지는 미묘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걸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그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데에 있어서 스테레오타입이나 대략적 일반화가 아닌 보다 섬세한 고려들을 요구하게 된다. 즉 타자 이해의 과업의 어려움은 극히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가 된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건 그 어려움들을 완화시키건 또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 삶의 근본 조건으로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건 간에 현대 사회에 속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선이 된다.

이 문제에 포함된 제시문들은, 타자 이해의 어려움을 여러 각도와 층위에서 드러내어 주면서 그 어려움에 연관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나 근본적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드러내어 주는 글들이다. 이 글들을 통해 수험생들은 타자 이해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방식들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연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그것을 사회적 현실 속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해 보게 할 것이다.

출제위원장